

토론문

강 은 실
(제주대학교 박물관)

토론자가 문화정책이나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토론을 맡겨 주신 이유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이용한 교육·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발표문을 통해 토론자 역시 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고 보존과 발굴, 활용 방안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제별 발표문을 읽고 교육·문화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진행자로서의 의견과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함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과 관리」 발표문에서 제주도문화재 관련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로 단일화한 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조직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해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각 각 이뤄졌던 문화재 관련 업무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계유산문화재부’로 단일화됨에 따라 관리 및 민원 대응에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용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이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정작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문제는 ‘문화재 정책’과 ‘문화재 연구’가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직 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전문적 조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자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6 페이지> 수리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공 및 지역기능공들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 토착기술이 문화재 수리에 융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자는 토착기술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분야 기능공들에게 문화재 수리에 대한 교육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향후 제주도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유형문화재의 보존」 발표문에서 불탑사 오층석탑의 보수현황을 말씀하시면서 1999년에 석탑을 해체보수 했고, 과거 사진 비교를 통해 두 번의 보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화재의 경우만 보더라도 문화재 보수에 대한 기록은 담당 부서나 사업을 진행한 기관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보존처리에 대한 기록 보존이나 공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문화재 보수 및 보존처리에 대한 경력 자료를 공개하여 일반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안내문에 문화재 보수 경력을 기록하여 공개한다면 일반인들에게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전승보전 방안」 발표문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전수관 현황과 함께 현재 전수관의 운영 형태와 운영상의 어려움,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수관 운영에 대한 논의로서 최근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 개최된 ‘제주무구전’ 전시회와 ‘갯전시관’의 ‘공예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전수관에서 일반인들이 무속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한 것으로 제주도 무속신앙을 대변하는 ‘무구’를 대표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무구’ 650여 점을 대여하여 전시하고 전수관 이어야 가능했던 마블림제를 거행하여 전시에 특별함을 불어 넣었습니다. ‘갯전시관’은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과 함께 공예축제에 참여하여 전시관을 공유하고 젊은 창작 공예인들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사업으로 관련 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중화를 잇는 구심체적 장소가 ‘전수관’이 될 수 있도록 전수관의 제한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전수관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 「제주도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과 관리」 발표문에서 제주 문화재의 특징으로 지정 문화재의 38%가 돌로 조성된 문화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돌 유산은 그보다 더 많고 생활유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에 연대, 성곽, 진성 등 돌로 축조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하여 제주돌 쌓기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축조 되었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망건장, 탕건장, 옹기장, 구덕장 등만이 지정되어 있고 ‘석공예’와 관련된 ‘석공’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돌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미 활동을 했던 ‘석공’들은 나이가 많아 손을 놓거나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토론자는 제주 돌문화의 특징을 보존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석공’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6. 「제주도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발표문을 보면 현재 국가지정 매장문화재 중 전시관이 운영되는 곳은 제주목 관아,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 용담동 유적입니다. 이 중 제주목 관아와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의 전시관은 문화 교육이나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일반 시민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전시관의 체험 행사와 상설 체험 교육은 일반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고산리 유적의 홍보 및 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파두리 향몽유적에서 이뤄지는 장터 행사나 꽃밭조성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유적 활용의 사례로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의 경우 전시관과 함께 야외 전시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양동 선사유적 전시관은 그 활용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시관을 활용한 문화 교육과 행사 등을 진행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양동 선야유적 전시관을 다른 전시관과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산리 유적 전시관 운영 사례와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